

“실적 못 내면 그만 뉘라”...수입차 회사 직장갑질 논란

도이치아우토 광주·창원서 집회 퇴사 강요·막말·당직수당 미지급 4월부터 7차례 시도...협박 불발 노조 참여 직원 임금 삭감협박도

고급수입차 전시장·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도이치아우토에 올해 초 노동조합이 설립돼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

으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도이치아우토 광주와 경남 창원지점 노동조합은 직장내 갑질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올해 7차례 교섭을 시도했지만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해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1일 서구 상촌동의 포르쉐테 앞 도로변에는 ‘부당 노동행위 일삼는 도이치아우토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소속 도이치아우토지회 광주지점 노동자 10여 명은 지난 4월부터 창원지점 노동자들과 함께 직장 내 갑질 개선을 촉구하며 서울 본사와 광주와 창원지점에서 부분 파

업 등 집회를 열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각 지점장이 실적 부진한 영업직 사원에 퇴사를 강요하고 상습적인 욕설과 함께 강압적인 업무 지시, 소지품 검사 등 직장 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도이치아우토 지회 측이 판매 실적이 저조한 사원에게 ‘실적 못 내면 그만뉘라’고 말하거나 말도 안되는 지시를 했다”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xx새끼’ 등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말대꾸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른 판매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여러

요청도 호소했다. 노조는 도이치아우토가 포르쉐 광주지역 판매사를 인수한 2019년 1월부터 당직 수당을 한 차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업직은 내방객 및 전화 문의 상담 등을 위해 1~2시간 가량 당직 근무를 하는 동안 시간 외에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임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일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사측에 3년간 당직 수당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인정하지 않

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직은 판매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도이치아우토의 성과급은 다른 포르쉐 판매사에 비해 30~40% 낮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같은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 및 임금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차례의 교섭을 통해 사측에 10개안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측에서 교섭에 참여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회사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등의 사측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혜린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의 공개사과와 즉각 철회를 촉구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외교부, 피해자 만나기 전 먼저 사과해야”

강제동원시민모임 기자회견

외교부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사과가 먼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법원 의견서 제출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단체는 “외교부는 지난 7월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상 판결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사과를 먼저 하는 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서 제출은 배상도, 면담도 거부하는 미쓰비시에 우리 정부가 손을 보태준 것”이

라며 “앞에서는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혜린 기자

‘보조금 유용’ 시체육회 관계자 등 검찰 송치

미운영·축소운영 사실 확인

보조금 예산으로 운영된 광주시 생존수영 교실의 미운영·축소운영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생존수영 교실 사업 예산을 유용한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로 총 4명을 불구속 송치(기소외결)했다고 1일 밝혔다. 4명 피의자는 광주시 체육회 소속 A씨 등 임직원 2명, 남구다목적체육관·시 수영연맹의 전·현직 관계자 등이다. 이중 1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 자치구 구의원 후보로 입후보한 공천 신청자였다. 이들은 2019년 생존수영 교실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예산을 받고, 제대로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는 생존수영 교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는 4주간 교실이 2주로 축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수영 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보조금 등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강사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이들이 유용한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언론과 시민 등으로부터 잇따라 생존수영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를 벌였고, 실제 생존수영이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등을 진행, 생존수영대회 허위 진행과 보조금 유용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구체적 보조금 유용 액수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환준 기자

건설노조, 임금 인상 요구 ‘총파업’ 돌입

광주·전남 건설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건설노조는 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총력투쟁 선포 결의 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결의 대회는 연대사, 공연, 투쟁사, 결의문 낭독, 파업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건설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건설사들은 물가 인상과 자재 값 인상으로 공사 현장의 설탕운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댓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으로 많은 건설 노동자가 죽는 현장을 바꾸는 대신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 행위로 몰아 위축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법에서 정한 국·공휴일 유급조차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기업

현대로오텍(주)

현대이엔티(주)

생산 및 품질인증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고품질, 고효율, 유지보수**에 편리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임직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산품	태양광EPC
수배전반(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	태양광시공 및 분양, ESS, 전기공사, 유지보수
현대일렉트릭 특약점	변전소네티키공사
비상발전기, 변압기, 모터, 차단기, 태양광PCS	154/345kV S/S 공급 시공, 시스템설계, PM

■ 154kV 해남변전소

■ 태양광발전소-PV+ESS

■ 건물 지붕 태양광

■ 몰드변압기

■ 배전반

■ 주변전선 배전반

대표이사 노정규
 C.P 010-3573-1323
 Homepage <http://rotech.kr>
 E-mail rotech@rotech.kr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340 (연제동) 현대로오텍(주)
 TEL : (062) 972-4491 FAX : (062) 972-8863
 목포공장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불3길 14 (난전리) 현대이엔티(주)